



하상주보

2020년 6월 21일 (가해)

연중 제12주일

제1804호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31-32)



제1독서 예레 20,10-13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화답송 시편 69(68),8-10.14와 17.33-35
(◎ 14ㄷ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2독서 로마 5,12-15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복음 마태 10,26-33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29] 미사 시작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파견성가: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26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28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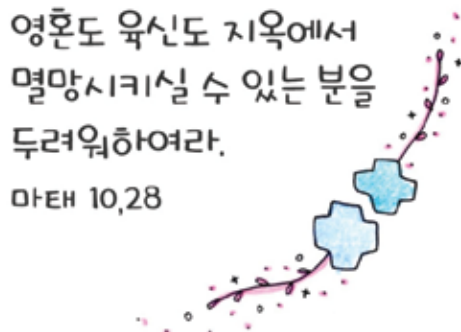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Gehenna. Mt 10,28

4000000000

복음 묵상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성 마태오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태오가 병사들의 손에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두 가지 장면이 대비를 이룹니다. 한 장면에서는 포악한 병사가 마태오를 죽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천사가 월계수를 마태오에게 건네고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한 그림 안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그린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신앙에 의하여 승리의 월계수가 주어지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면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비극적 죽음이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압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씨앗이 죽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났다.”라고 말하듯이, 비극적인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11,1).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에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한재호 루카 신부〉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항상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을 계속 이어갑시다. 창세기는 우리의 삶에 반영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고대인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족장 시대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최고 재능을 교활하게 사용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야곱 이야기는 야곱의 어려운 관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인 에사우와 나눴던 어려운 관계 말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는 이후에도 결코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 둘째였고, 거짓으로 아버지 이사악에게서 (형 에사우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창세 25,19-34 참조). 그것은 이 부도덕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련의 많은 속임수 중 첫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역시 교활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형을 피해 멀리 도망가야 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일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에 능숙했습니다. 큰 무리의 양떼를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끈기와 인내심으로 라반의 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딸이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야곱은 재능과 교활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부리와 의 살아 있는 관계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과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 에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많은 사람과 가축 무리와 함께 긴 여정을 거쳐, 마지막 여정의 장소인 야브겡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장면을 보여줍니다(창세 32,23-33 참조). 성경은 야곱이 자신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많은 가축 전부를 야브겡을 건너게 해서 보낸 다음 이방인의 땅에 홀로 남았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다음 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사우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머리는 생각들이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과 같았습니다. (...) 그리고 날이 저물자,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를 붙잡고 그와 겨루기 시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영적 전승은 이 이야기를 기도의 상징으로, 곧 신앙의 싸움과 끈기의 승리로 이해해 왔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73항).

야곱은 밤새 싸웠습니다. 절대 상대방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상대방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이 신비로운 싸움의 상대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29절). 말하자면, 더 이상 이렇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도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상대방은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대신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뵈었음을 깨달았습니다(창세 32,30-31 참조).

하느님과 겨루기.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은유입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느님을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오랫동안 지속되고 거의 질 것 같았던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한순간 그는 더 이상 상황의 주인도 아니고, 그의 교활함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략가도 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야곱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치명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느님과) 싸우는 동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 무력함, 죄 외에는 하느님께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야곱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절름거리며 들어갑니다. 상처받기 쉽고 나약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임합니다.

언젠가 한 노인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인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큰 신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절름거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엔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교활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은총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비에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이곳에서는 내가 명령한다.” 그는 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놓치고 있던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그가 유한한 존재이며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에,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 인생의 많은 밤에, 곧 **우리의 어두운 순간들, 죄의 순간들, 혼란의 순간들에는 하느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엔 하느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 있는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밤에, 미지와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가 단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 감히 “불쌍한 것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불쌍한 것들”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전체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두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좋은 초대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각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변화시켜주십시오.”

2020. 6. 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9일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봉헌(미사 전, 후)
가톨릭 기도서 109면, 매일미사 191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6월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

매년 6월은 한국 천주교회 구성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며,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한반도가 6·25 전쟁 정전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평화체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올해도 담화문 발표와 함께 아래와 같이 9일 기도를 바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9일 기도

- 기간 : 2020년 6월 17일(수)~25일(목)
- 방법 : 미사 전 · 후 기도문 함께 봉헌
- 기도문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면 / 매일미사 191면)

지 향

- 6월 20일(토) -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6월 21일(일) -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 6월 22일(월) -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 6월 23일(화) -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 6월 24일(수) -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 6월 25일(목) -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족의 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며,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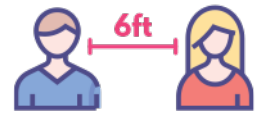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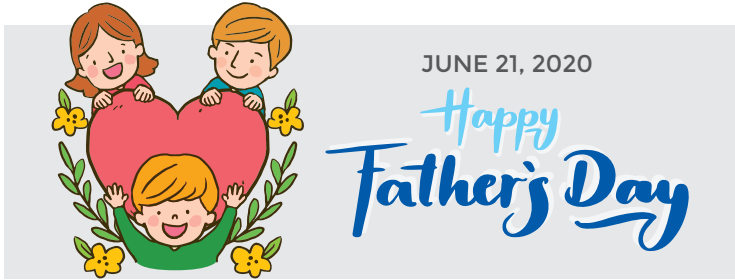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시범으로 운영하는 미사를 통해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 (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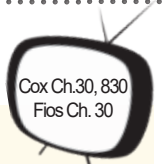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6월 25일(목) 오후 5:00-6:00
- 6월 26일(금) 저녁 8:00-9:00
- 6월 28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삶 꺼안기 2부**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6월 24일(수) 오전 6:15-6:45 | 6월 27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유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13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CYO 시니어 졸업 축하행사
Senior Banquet



- CYO시니어들이 4년간의 추억을 뒤로 한 채 졸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년같은 **시니어 뱅킷**은 하지 못하지만 부족하나마 다른 방식으로, **드라이브 스루와 온라인** 형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CYO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ur CYO seniors have finally graduated!
Over the past 4 years, they have created amazing memories at SPC.
In honor of them, we will be hosting our annual Senior Banquet to celebrate and congratulate our new graduates.
Due to Covid-19, we will be hosting our senior banquet outdoors, in an online and drive-thru format. In order to keep everyone safe, we will all be wearing masks and practicing mandated social distancing.
We hope to see our CYO students and parents show support for our new graduates as they begin a new chapter in their lives.

- **Where:** 성 정하상 바로로 성당 주차장 (St. Paul Chung Church Parking Lot)
- **When:** 6월 26일 오후 7시 (Friday, June 26th, 7 pm)
- **Online Link:** 추후 공지 예정 (TBA)

